



이열치열 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시민들이 운동하며 열대야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밤 기온은 26도 안팎을 기록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폭염에 말라죽는 농작물 농심도 바짝 타들어간다

감·복숭아 과일 낙과·갈라짐 피해...벼·밭작물도 상태 좋지 않아 꽃 말라 벌떡이 실종 양봉업 초비상...가뭄 길어지면 대규모 피해

광주·전남지역에 11일 연속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농작물이 버티지 못하고 말라 죽고 있어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봉감' 주산지인 영암 금정면 부월·와운기동마을 등 농가에서 폭염으로 인한 감 낙과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영암군 금정면의 500여 농가 400ha에서 열린 대봉감 중 85%가 낙과했으며, 영암읍·덕진면·신북면 등 대봉감 50여 농가에서도 100ha 규모의 낙과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영암군은 이상고온 등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라 낙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산림청에 재해인정을 요청했다.

여름철 수확을 앞둔 과일 농가에서도 열과(겉질 갈라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울 볼 이상저온으로 열매 표면에 냉해를 입었는데, 최근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밤에는 습한 날씨가 반복되면서 냉해를 입었던 표면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30여년간 화순군 능주면에서 복숭아 농사를 지어온 노상현(64)씨는 "봉지를 열어보면 복숭아 10개 중 3개는 찌꺼기 갈라져 있다"며 "나중에 수확해서 선별해보기 전까지는 피해가 얼마나 될지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올해는 꽃이 늦게 피었고 열매도 줄었는데, 그나마 남은 복숭아들도 열과나 습한 밤에 나타나는 벌

레 피해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노씨는 "지난 3~4월에 복숭아 겉피부 세포가 상하면서 살짝 죽어버린 상태였다. 봄철에는 온도 편차가 너무 커서 생육에 문제가 많았고, 꽃도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피었다"며 "여름 들어선 열대야가 계속돼 밤에도 26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복숭아가 쉬지 못하고 과도한 생육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뭄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자 벼 농가에서도 벼 이파리가 빨개지며 타들어가는 현상을 겪고 있다. 화순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모(44)씨는 "현재 모가 손 한뼘 정도 자랐는데, 고온 현상으로 이파리가 빨갱게 됐다"며 "고온 현상으로 눈에 들어가는 물도 뜨거워서 더 심하다"고 말했다.

양봉업자들도 초비상이다. 기온이 너무 높아서 꽃이 말라버려 꽃가루 생산이 안 되고, 벌들이 먹이 식량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광주시 광산구 평동에서 40년째 양봉업을 하는 이준경 광주시농민회 회장은 "벌이 먹이 꽃가루가 없어 인공으로 꽃가루를 공급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너무 더워서 벌집이 녹아내리고 여왕벌 산란도 되지 않았는데 올해도 막심한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비가 11일째 오지 않고, 예보된 소나기마저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 폭염을 뚫고 지하수를 끌어와 한없이 물을 뿌리는 수밖에 없



열과 피해를 입은 복숭아의 표면이 갈라져 내부가 드러나 있다. <독자 제공>

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욱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는 태풍 등 재해처럼 눈에 띄는 피해가 아니다 보니 선불리 피해 신고를 하기도 조심스럽다는 것이 농민들 입장이다.

이준경 회장은 "비가 내리지를 않아 고추, 깨, 수박 등 밭작물이나 가뭄이 있는 상태라 폭염 피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일주일 가뭄이 더 이어진다면, 농작물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물론 대규모 피해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 19개 시·군(나주·장성·화순·보성·광양·영암·순천·광양·구례·곡성·완도·고흥·여수·강진·무안·영광·장흥·함평·해남)에 폭염경보가, 목포·신안·진도, 거문도·초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유지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사람·가축 잡는 무더위

광주·전남 온열질환자 80여명...가축 4만1095마리 폐사

본격 더위가 시작된다 소서(小暑)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 인명 피해와 가축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다.

당분간 비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 6일까지 보고된 광주·전남 온열환자수는 총 81명(광주 17명, 전남 64명)에 달한다.

온열질환자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폭염으로 인해 전남 18개 시·군 104호 농가에서 닭·돼지·오리 등 가축 총 4만1095마리가 폐사해 7억4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양계농가 21곳에서 3만5344마리의 닭이 폐사했고, 오리 3980마리(농가 5곳), 돼지 1771마리(농가 78곳)가 폐사했다.

지역별로는 무안 1578마리(2억4300만원), 나주 4256마리(1억6700만원), 화순 660마리(4900만원), 함평 71마리(3600만원) 등에서 가축들이 폐사했다.

무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까지 동해북부해상에 저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고온다습한 공

기가 유입되고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나타나 무더웠다"고 예보했다.

8일 아침최저기온은 23~26도, 낮최고기온은 31~35도, 9일 아침최저기온 22~25도, 낮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상된다. 10일 아침최저 22~24도, 낮최고 31~35도로 연일 35도를 웃도는 기온이 나타나겠다.

8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광주와 전남에는 지상공기가 달궈지고 대기가 불안정해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5~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수 있지만, 비가 그친 뒤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다.

열대야 현상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7일 오전 7시 기준 여수 25.6도, 순천 25.3도, 광주 25.2도, 목포 25.1도, 신안 일제도 25도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에 대비해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오랜시간 혼자 농작업을 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며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니 송풍장치를 가동하고 분무장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목포고-목포여고 통합'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은?

도교육청, 14~25일 설문조사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의 통합·이설을 앞두고, 기존 학교 용지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설문 조사는 목포 지역 주민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면 여론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시민 대상 대면조사는 오는 14~25일 지역 주요 거점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이뤄지며, 교직원·학생·학부모·목포시청 및 목포교육지원청 직원 대상 온라인 설문은 오는 9~18일 진행된다.

도 교육청은 목포시청·교육정책연구소와 함께

설문조사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

조사 항목은 학생 공간(어린이 놀이·교육시설·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시설(진로·직업 체험·평생교육 등), 문화·예술시설(컨벤션·도서관 등), 체육시설(스포츠시설·훈련장 등), 관공서·공공기관 이전(교육지원청 등) 이다.

도 교육청은 8월 중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목포 시민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목포고는 목포 옥암지구 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 부족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사업비 644억원을 투입, 32개 학급 규모로 신축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시, 재해 우려 맨홀 2516개에 추락방지 시설

광주시가 재해 우려 구역을 중심으로 맨홀 2516개에 단계적으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역 맨홀 총 10만 2284개 중 인명사고 위험이 큰 하천변, 상습침수 지역, 저지대 등을 대상으로 2516개를 선정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에서 하수도 맨홀 뚜껑이 열려 인명피해가 발생한 맨홀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가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재해취약지역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

화한데 따른 조치다. 맨홀 개당 설치 비용은 100만~150만원 상당이다.

광주시는 의무화 대상 맨홀인 2516곳에 우선 조치를 하고 이 후 자치구별로 중점 관리대상에 대한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055개소(41.9%)의 맨홀에 방지시설을 설치했고, 자치구와 협력해 오는 9월까지 779개소(30.9%)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나머지 682개소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 우기 전까지 설치를 마무리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한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N...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p>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p> <p>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p>	<p>각 보험회사 대표번호</p> <p>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p>
--	--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